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 연구

-단행본 출판과 총서 기획을 중심으로-

서 승 희*

목 차

Ⅰ. 서론
Ⅱ. 인문사의 등장 배경과 출간물의 특징
Ⅲ. 인문사의 총서 기획
Ⅳ. 결론

국문초록 | 본고는 인문사(人文社)의 출판 기획을 중심으로 식민지 후반기 출판 문화 장과 문학 담론의 관계를 분석했다. 우선 인문사 사장 최재서의 출판 관련 글쓰기를 중심으로 1930년대 중반 이후 문학 시장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문사의 운영 방식과 출간물의 성격을 정리했다. 인문사의 출간물은 조선의 언어, 역사, 문학 관련 서적, 서구문학 번역서, 월간 비평지『인문평론』,『조선문예연감』및『조선작품연감』등을 망라하는 다양성을 지녔다. 이와 같은 출판 기획의 근본적 목표는 당대 문학의 쇄신을 통해 창작과 비평을 활성화하고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3243).
이 논문의 초안은 2015년 8월 우리어문학회 하계 기획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토론을 맡아 주신 유석환 선생님, 아울러 논문 수정에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徐承希,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강사

투고일 : 2018. 11. 10. 심사완료일 : 2018. 12. 3. 게재확정일 : 2018. 12. 20.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8.35..147

대중 교양을 앙양하는 데 있었다. 전작장편소설총서와 세계명작소설총서는 이와 같은 목표가 빚어낸 핵심 결과물이다. '전작'이라는 형식을 통해 소설 출판의 관행을 바꾸고, 고전이 아닌 동시대의 명작을 번역해 독자층의 저변을 넓히고자 했던 인문사의 기획은 이른바 전환기라는 맥락 속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문 교양의 가능성과 임계점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인문사의 출판 기획을 실증적으로 재구했다는 점, 식민지 후반기 문학 생산의 토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 인문사, 출판기획, 최재서, 전작장편소설, 세계명작소설, 전집, 총서, 『대하(大河)』, 『화분(花粉)』, 『대지(The Good Earth)』

Ⅰ. 서론

인문사(人文社)는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 식민지 조선의 문학 담론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출판사이다. 인문사의 출간물은 조선의 언어, 역사, 문학 관련 서적과 서구문학 번역서, 월간 비평지 『인문평론(人文評論)』, 『조선문예연감(朝鮮文藝年鑑)』 및 『조선작품연감(朝鮮作品年鑑)』 등을 망라하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동시대를 풍미했던 문장사가 월간 문예지 『문장』 출간을 중심으로 삼았으며,[1] 학예사가 조선문고 시리즈 발간에 주력했던 것과 변별되는 특징이다.[2]

그러나 인문사의 기획 및 활동들은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조명된 바가

1) 문장사에서 출간된 단행본으로는 김상용 시집 『망향』,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병기의 『가람시조집』, 이태준의 『딸삼형제』, 『문장강화』, 정지용 시집 『백록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저서들은 문장사의 기획으로 출간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창작을 엮어서 낸 창작집의 성격을 지닌다.

2) 조선문고는 『원본 춘향전』(1939) 등 조선의 고전, 김태준의 『증보 조선소설사』등의 문학사, 유진오의 『해바라기』, 김남천의 『소년행』 등 현대문학선집, 임학수의 『일리아드』 상·하권 등 번역물을 포함 총 20종이 간행되었다. 방민호, 「임화와 학예사」, 『상허학보』 26, 2009, 278쪽.

적다. 물론 인문사라는 키워드를 내세우지 않았을 뿐, 인문사를 주관한 최재서(崔載瑞, 1908-1964)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인문평론』의 문학사적 중요성은 새삼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에서 인문사는 최재서의 개인 이력을 언급하는 중에, 혹은 서지 정보와 관련하여 언급될 뿐 주된 논의의 대상은 아니다.[3] 또한 『인문평론』 내부의 개별 기사, 예를 들어 권두언이나 비평, 번역 글을 분석하는 글들은 『인문평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나,[4] 더 나아가 출판사의 기획과 잡지 미디어, 개별 텍스트가 조응하는 양상을 입체적으로 재구할 필요성이 제기

3) 인문사는 최재서가 설립했고 기획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최재서의 문학적 지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최재서 관련 선행 연구는 인문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참조 대상이나, 본고는 최재서의 개인 비평에 집중한 기존 연구와 달리 출판 관련 논고, 인문사 간행 도서의 서문, 후기, 신간평, 광고, 해설 등을 활용하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관련 연구로는 강유진, 「『인문평론』의 신체제기 비평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7; 신동준, 「『인문평론』 연구: 전체주의에 대한 대응 담론을 중심으로」, 인천대 석사논문, 2008; 채호석, 「193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지형도: 『인문평론』의 안과 밖」, 『외국문학연구』 25, 2007; 송병삼, 「1930년대 후반 "비평의 기능": 『인문평론』의 문화담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4, 2008; 송병삼, 「일제말 근대적 주체되기의 감성과 문화담론: 1930년대 후반 <人文評論>지(誌) 문화론을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36, 2010.

한편 편집주간 최재서와 집필진의 특징, 주요 코너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인문평론』과 『국민문학』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고찰한 연구와 『인문평론』 내 외국문학 담론을 고찰한 연구도 눈에 띈다. 채호석, 「1930년대 후반 문학의 지형 연구: 『인문평론』의 폐간과 『국민문학』의 창간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9, 2008; 서은주, 「파시즘기 외국문학의 존재방식과 교양: 『인문평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2, 2012. 전자의 경우, 문제의식의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출판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자의 경우, 『인문평론』의 외국문학 담론을 서구문학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지나' 관련 번역과 비평, '일본' 문학 관련 비평과 연구를 포괄할 때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문평론』의 지나 담론 관련 연구로는 박필현, 「『인문평론』에 나타난 "지나(支那)": 자기화된 만주와 제국의 "안의 밖" 지나」, 『한국문예비평연구』 45, 2014.

된다.[5]

문학 연구에서 텍스트 외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천 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문학 연구자들은 독자, 미디어, 재생산 제도, 검열, 출판, 문학 시장 등 텍스트를 둘러싼 환경과 토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6] 이들은 텍스트의 미학적 특징에 천착하는 대신, 텍스트가 어디에 수록되었는가, 텍스트 생산에 영향을 끼친 요소는 무엇인가, 누가 읽었는가, 어떻게 유통, 판매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등을 질문함으로써 한국의 근대 문학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었다. 개별 작가나 텍스트가 아닌 인문사에 주목하는 본 연구 역시 선행 연구들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인문사의 존립 시기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를 두루 조망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과제들을 제기한다. 이 시기는 조선 출판 문화의 전성기[7]인 동시에 중일전쟁으로 인해 출판 통제 및 용지 제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8]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조선의

---

5) 본고와 관련해 중요성을 지니는 선행 연구는 장문석의 「출판기획자 최재서와 인문사의 탄생」(『근대서지』 11, 2015)이다. 장문석은 출판기획자 최재서를 조명하는 한편, 인문사의 창립 과정을 조망했다. 특히 인문사가 신문 광고 및 신간평을 활용해 서적을 광고하는 양상, 비평잡지와 연감 출간 등이 가지는 의미를 적실히 짚었다. 본고의 경우 인문사 간행물의 함의, 총서 기획 분석에 방점을 두어 차별화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6) 대표적인 연구로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 출판부, 2006; 박헌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3 등을 꼽을 수 있다.

7) 천정환, 위의 책, 308~314쪽.

8) 이중연,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출판·독서 통제」, 『한국문화연구』 8, 2005; 이종호, 「출판신체제의 성립과 조선문단의 사정」, 와타나베 나오키 외 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소명출판, 2010.

출판계는 전문 집필진의 확보와 독서 대중의 성장에 힘입어 융성기를 맞이했고, 인문사 역시 이와 같은 조건 아래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문사는 창립 직후부터 황군위문작가단, 조선문인협회, 조선출판협회 결성 등에 관여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으며, 실제로 전쟁과 국책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행보를 걷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아울러 조감해야만, 그리고 그 모순된 조건 아래 전개되고 실험된 기획들을 제대로 평가해야만 이 시기 인문 서적 출판의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9]

한편 인문사가 내세운 '장편소설', '세계명작', '연감', '월간지' 등의 주요 기획은 당대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명칭으로 기획·향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년 올해의 '문제소설', 현장비평가들이 뽑은 우수한 '시', 각종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수도 없이 마주한다. 소설의 형식 실험이나 변환을 둘러싼 탐구 역시 익숙한 주제이며, 세계 속의 한국 문학을 가늠해보는 논의들도 그러하다. 노벨문학상 대망론도 늘 거론되는 주제이다. 한편 문학계의 부진이 개탄되는 와중에도 문학 관련 정기간행물이 출판사별로 꾸준히 발행되며, 신인 작가를 발굴/선출하는 제도적 장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인문사의 간행물들은 오늘날 존재하는 인문서 출판 기획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되묻게 한다. '인문'이란 용어는 일견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 것처럼 생각되나,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외양을 지닌 것이라도 어떻게 배치되고 활용되는가에 따라 특수한 의미 체계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인문사가 내세운 인문, 교양, 연감, 총서, 명작 등의 키워드는 오늘날의 그것과 겹치는 동시에 갈라지는, 동일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9) 조선의 출판업은 1940년경을 기점으로 급속히 쇠퇴하였다. 태평양전쟁 준비로 인해 인적 물적 수탈이 본격화함에 따라 국내 경제력이 무너졌고, 출판물의 유통이 일본출판물배급회사의 단일 유통망에 의해 통제되면서 지방 소매판매망들은 그 기반을 상실했다.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1, 22쪽.

내포와 외연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문사 연구는 1930년대 후반기~1940년대 전반기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인문'의 정신이 출판이라는 형식을 매개로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그 효과 및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인문사는 다양한 형식의 서적을 출판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본고에서는 인문사 창립의 배경과 운영, 출간물의 지형도를 실증적으로 정리한 후, 전작장편소설총서 및 세계명작소설총서 기획의 의미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인문사의 기획이 『인문평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양상과 연감 출판의 의미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Ⅱ. 인문사의 등장 배경과 출간물의 특징

1. 식민지 후반기 출판 환경

1937년 12월 인문사를 창립한 최재서는 경성제국대학 및 동 대학원 출신으로, 일본의 학계에서 "헉슬리 전문가"로 인정받는 소장 영문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강단에 서는 대신 현장 비평가의 길을 택했다. 이는 교수 임용이 가로막힌 식민지 현실에 대한 좌절[10]과 외국문학을 통해 조선문학에 기여하겠다는 계몽의 의지[11]가 아울러 작용한 결과였다. 문단 진출 초창기에 주로

10) 제대 문학부 졸업자의 경우 대부분 연구를 지망했지만 현실적으로 중등교원 외에는 직업을 구할 수 없었다. 대학의 교수요원은 물론 연구인력까지도 일본인으로만 충원되었기 때문이다.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9, 166~174쪽. 상아탑에서 쌓은 지식의 무용성에 대한 최재서의 생각은 다음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재서, 「현대작가와 고독, 문학을 지망하는 동생에게」, 『삼천리문학』 제2집, 1938. 4.

11) '자국문학을 위한 영문학'은 최재서의 지도교수인 사토 기요시의 신념이자 제국대학

영미 비평 이론을 소개하던 그는 「풍자문학론」(1935),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1936) 등을 쓰며 점차 조선문학 비평가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갔다. 그리고 기성 매체에 글을 싣는 데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출판 기관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카프의 퇴조로 문단의 주조가 사라졌고, 일본발 시국담론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으며, 서구의 문화적 자산들이 파산 선고 직전에 놓여 있던 시점에 그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일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최재서 개인의 내적 동기가 아니라 조선 문학 시장의 성장이라는 외적 기반이다.

최재서가 출판업자로서 작성한 글로는 「출판 1년생의 변」과 「최근 독서 경향」을 꼽을 수 있다. 전자에서 그는 인쇄술 미비며 용지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제 조선도 초판 천 부 정도는 가볍게 소화할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고 언급했다.[12] 또한 후자에서는 조선의 독서 시장이 도쿄의 소화(昭和) 7, 8년 시대에 비견될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출판물과 독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정상한 취인(取引) 관계 우에 설 때" 독서가 비로소 사회 현상으로서 확립되는데, "조선의 출판업도 예전의 악몽적 비관을 일소하게쯤 되엇다"는 것이다. 당시 잘 팔리는 책은 대중소설, 문예(소)설, 단편소설, 시집, 수필집의 순이었으며 평론집도 상당히 팔렸다. 한편 학예사 등의 문고본 출간으로 고전 읽기 열풍이 생겨난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었다.[13]

「최근 독서 경향」과 같은 지면에 수록된 「출판계의 현조류」에서 함대훈 역시 문예물 중심의 독서 시장이 조선 특유의 현상임을 지적했다. 일본의

영문학의 목표이기도 했다. 佐藤清, 「경성제대 문과의 전통과 학풍」,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 일지사, 1984, 404쪽. 그런데 경성제대의 조선인 학생들에게 '자국문학'이란 반드시 '일본문학'과 일치하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으며, 이를 최재서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최재서, 「출판 일년생의 변」, 『비판』, 1938. 9., 72쪽.

13) 최재서, 「최근 독서 경향」, 『조선일보』, 1939. 4. 30., 4면.

독서 시장에서도 문학의 지위가 가장 높긴 하지만 다른 분야의 판매율 또한 높다는 점에서 조선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함대훈은 그 이유를 "정치나 경제나 시사 가튼 것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현상을 알 수 잇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외국어 서책과 화문(和文) 서적에 의해 넉넉히 채취할 수 잇게 되는 관계요 문예는 외국 문예나 내지 문예로써 만족할 수가 업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문예는 자기 사회의 향기를 담지 안흐면 절실하게 호흡하기에 부적"하기 때문이다.[14]

이처럼 민족적인 것에서 연유를 찾는 함대훈의 설명도 합당하긴 하나, 이를 전부라 볼 수는 없다. 역시 같은 지면에 수록된 동광당 서점 주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가장 잘 팔리던 책은 『상랑('사랑'의 오기-필자 주)』, 『찔레꼿』, 『운현궁의 봄』, 『직녀성』 순이었다. 총독부 도서관 직원 역시 『사랑』을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의 첫 순위로 꼽았다. 이광수, 김말봉, 김동인, 심훈 등의 대중적 장편소설은 함대훈이 지적했듯 반드시 "제 땅 제 고향의 흙냄새"만 지녔다기보다 대중적인 스토리가 부각되는 소설에 속했다.

이와 관련하여 1930년대 독서계의 팽창은 "억눌린 민족의 정치적 욕구가 문화를 통해 우회하여 분출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현상"이란 천정환의 분석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의 지적대로 이 시기에 문학은 "선택 가능한 대중문화 향유의 한 양식으로서 그 위치를 재조정"받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대중문화 융성의 결과였으며, 비단 독자뿐 아니라 연극 영화 관객 및 라디오 청취자의 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것이었다.[15]

최재서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도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문학이 자리 잡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아가 신문 저널리즘의 상업적 전략이 독자를 견인해냈다는 사실을 음미하며 문학의 현재와 장래를 논하기도 했다.[16]

---

14) 함대훈, 「출판계의 현조류」, 『조선일보』, 1939. 4. 30., 4면.
15)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312~313쪽.

다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문학이 통속적 재미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전운(戰雲) 속에서 "표면상 문화적 경영이 일시 정돈된다 할지라도 지식인의 지적 에네르기만 살아 있다면 문화 전승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최재서의 다짐은 당시 비평가들이 그토록 열띠게 문학에 관한 글들을 써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짐작케 한다.[17]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일본어 책의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괄호를 치거나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실 일본의 저널리즘이야말로 조선 독서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최재서는 경성의 서점들이 "언문책"들을 취급하기 꺼려 한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일본 책에 비해 잘 안 팔린다는 이유에서 조선어 책을 아무렇게나 굴리는 서점들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를 받아놓고도 진열조차 안 하다가 죄다 잃어버린 서점이 있는가 하면, 인문사의 서적 위탁을 요청해도 공연히 자리만 차지한다며 거절하는 서점도 있었다. "참고서 나부랭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단 한 권이라도 언문책을 보급식히도록 전력을 다하라"는 최재서의 일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수험용 참고서는 각종 잡지들과 더불어 조선어 서적의 최대 경쟁자였다.[18] 채만식의 「치숙」(1938)에서 울려퍼졌던, "나는 죄선 신문이나 죄선 잡지하구는 담 쌓고 남

16) 관련 논의로는 임화, 「문화기업론」, 『청색지』, 1938.6; 최재서, 「연재소설에 대하여」, 『조선문학』, 1939.01; 김남천, 「신문과 문단」, 『조광』, 1940. 10. 등 참조.
한편 유석환의 논의는 주로 신문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논의와 차별화된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30년대 『비판』, 『삼천리』, 『조광』 등의 문예 지면을 분석한 그는 "종합지들 사이에서 정론이 균질화될수록 생존 및 경쟁의 수단으로서 문학의 가치가 제고되었고, 문학은 종합지를 대표하는 구성물로 격상되어 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1930년대 문학 서적의 융성은 종합지간의 생존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유석환,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 『사이』 6, 2009; 유석환,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2」, 『한국문학연구』 53, 2017.
17) 최재서, 「세기에 붓치는 말 - 사실의 세기와 지식인」, 『조선일보』, 1938. 7. 2., 5면.
18) 최재서, 「출판 일년생의 변」, 『비판』, 1938. 9., 72쪽.

된 지 오랜걸요"라는 소년의 목소리는 결코 과장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듯 1930년대 후반기 조선의 출판계는 전쟁과 일상, 교양과 향락, 지식인(의 목표)과 대중(의 욕망), (일본)국민 되기와 (조선)민족의 자존, 공용어(일본어)와 민족어(조선어) 등이 조우하여 뒤얽히고 경쟁하는 가운데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어 인문 서적 출판사로서 출범한 인문사의 토대였다.

2. 인문사의 창립과 운영

인문사는 창립 당시부터 일반 도서는 물론 잡지 발간을 예고하는 등 확실한 지향점을 지닌 출판사였다.[19] 사장 최재서의 업무는 기획, 섭외, 실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했다. 그는 간행물 교정을 직접 보았고[20] 소매상을 방문하여 서적 위탁을 타진하는 등 영업 업무도 했다.[21] 그 밖의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최재서 평론집 『문학과 지성』의 자서(自序)에 원고 정리 및 필사에 수고한 이필갑(李弼甲), 선진수(宣鎭秀) 양 군에게 사의를 표한다는 말이 있어 업무를 분담하는 사원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22] 1939년 이후 시인 이용악이 『인문평론』 기자로서 근무했다는 기록들이 있으나[23] 구체적인 역할은

19) 「동서남북」, 『동아일보』, 1937. 12. 25., 4면. 인문사는 경성 광화문통 210번지(광화문빌딩 2층, 전화는 광화문2644)에 위치했으며 인문사 간행물들의 인쇄는 주식회사 대동출판사에서 담당했다.

20) 최재서, 「일기 일절 - 일기장에서」, 『동아일보』, 1938. 9. 10., 3면. 교정 보는 최재서의 모습은 다음 글에서도 드러난다. 「질서잇는 예산 생활로 특이한 설계가 필요, 양서 대신으로 고전 서적을, 최재서 씨 담」, 『매일신보』, 1939. 1. 6., 2면.

21) 최재서, 「출판 일년생의 변」, 『비판』, 1938. 9., 71쪽.

22) 최재서,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7쪽.

23) 박윤우, 『한국 현대시와 비판정신』, 국학자료원, 1999, 188쪽;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야기, 2009, 이용악 편 참조.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인문사의 출판 기획이 여러 지식인들의 조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인문사의 『조선문예연감』과 『조선작품연감』이 최재서, 김남천, 이원조, 임화, 백철, 안회남 등 6인 공동편집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데서 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난다.[24] 『인문평론』 창간 1주년 기념 현상모집 심사 역시 공동으로 진행됐다. 장편소설 심사는 최재서, 김남천, 임화, 이원조가, 평론 심사는 최재서, 임화, 이원조가 맡았다.[25] 『인문평론』의 특집이나 기획물, 가령 「모던문예사전」 같은 코너도 최재서, 김남천, 임화, 이원조, 김기림, 서인식이 교대로 썼다.

위에서 거론된 이름만으로도 최재서와 연대한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윤곽이 드러나지만, 인문사의 필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성제대 출신 문인 및 학자들을 들 수 있다. 위로는 이희승, 동료 관계로는 이효석, 유진오, 아래로는 임학수, 배호 등 경성제대 인맥들은 번역, 기고, 저서 출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문사와 관계를 맺었다. 둘째로, 조선일보 인맥이다. 조선일보사 학예부의 이원조와 돈독한 사이였던 최재서는 조선일보 편집 고문 문일평의 유고집, 조선일보에 절찬리에 연재된 김말봉, 김남천의 신문소설, 조선일보 야담 이벤트를 이끈 신정언의 야담집 등을 간행했다. 셋째, 외국문학 전공자들이다. 최재서는 이원조, 김기림 등의 친우뿐 아니라 해외문학파와도 연합해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이헌구, 손우성, 정인섭, 김진섭, 서항석 등을 역자로 섭외한 『해외서정시집』은 인문사의 성공적 간행물 중 하나였다.[26] 넷째,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인문평론』 권두 논문은 서인식, 신남철, 인정식, 김오성, 박치우 등을 필자로 내세웠고,

---

24) 昭和14년판은 6인, 昭和15년판은 김남천, 김기림, 이태준, 이원조, 임화, 백철, 안회남, 최재서 등 8인 공동편집 체제였다.

25) 「본지 창간 1주년 기념 현상모집」, 『인문평론』, 6호, 1940. 3., 204~205쪽.

26) 이 시집은 출간 3개월 만에 초판이 매진됐다. 「출판부 소식」,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229쪽.

특히 김남천과 임화는 인문사의 문학 관련 기획에 깊게 관여했다. 일본의 영문학자 미하라 요시아키(三原芳秋)는 문단의 좌에서 우를 규합한 『인문평론』의 체제를 "인민전선적 문화정치 프로젝트"라 표현하기도 했는데,[27] 이는 적확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인문사가 느슨한 연대조차 맺지 않은 논자는 누구인가? 복고주의자와 대중추수주의자, 그리고 거대 출판자본이 선호하던 전대 문인들 - 대표적으로 이광수를 들 수 있다.

합자회사[28]로 운영된 인문사의 출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김병익은 『한국문단사』에서 『인문평론』의 창간이 "문학을 애호한 실업가 석진익(石鎭翼)"의 출자로 이루어졌음을 언급하였고[29], 장문석 역시 광산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재서 제자 김활의 언급을 들어 최재서의 해주 본가 과수원을 매각한 대금을 출자했다는 기록도 소개되나 그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기는 어렵다.[30]

인문사의 서적 판매 방식은 본사 발송, 각지 서점 판매, 지사 활용 등의 방식을 취했다. 지사 모집은 『인문평론』 창간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잡지 지상에 모집 광고가 반복 게재되었다.

> 支社 募集 規定
>
> 一. 支社는 本社에서 發行하는 書籍(月刊雜誌及 單行本)의 販賣及 廣告 募集의 業務를 取扱함
>
> 一. 雜誌는 十部 以上에 二割引으로 하고 一時 注文 五十部 以上에는 三割引으로 함(保證金은 不要) 單行本은 本社에서 指定한 保證金을 納入하는 支社에 限하야 '委託'制를 實施함(但 先金 注文에는 此限 不在코 雜誌와 同一한 規定

27) 미하라 요시아키, 「최재서의 order」, 와타나베 나오키 외 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소명출판, 2010, 95쪽.
28) 출판물의 판권정가란에 합자회사임이 명시되어 있다.
29) 김병익, 「문단반세기 48, 『문장』과 『인문평론』」, 『동아일보』, 1973. 6. 28., 4면.
30) 장문석, 앞의 논문, 2015, 601쪽.

으로 함)

一. 支社는 每月 十日까지 所有 部數를 本社로 通知하는 同時 代金을 先金으로 付送함을 要함

一. 送料는 本社 負擔으로 하되 賣殘 雜誌의 返品은 不應함

一. 廣告募集은 五割引을 支社의 收入으로 함. 但 申込 時 原稿와 料金을 同送할 것

京城府 光化門通 210 合資會社 人文社, 電(光) 二六四四番, 振 京二八六三三番.[31]

그 결과 인문사 지사는 조선의 각 지역은 물론, 일본 도쿄와 도쿄 서부, 중국 북경과 상해, 안미, 만주국 신경, 봉천, 통화 등에 총 53개 설치되었다.[32] 한편 인문사는 자사 서적 판매 외에 월간 잡지 『中國文藝』를 취차하여 판매하는 등 대행사도 겸했다.[33] 이는 중일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폭발하면서 인문사가 나름대로 '지나 담론' 유통의 선편을 잡고자 노력한 결과 중 하나라 하겠다.

인문사는 서적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34] 우선 일간 신문에 신간 소개, 신간평, 출판기념회 소식, 광고 등을 게재했다. 신간 소개가 한 줄 소식이라면, 신간평은 인문사의 조력자들을 두루 활용한 서평이었고,[35] 출판기념회 소식은 사진이 동반된 기사, 신문 광고는 주로 『동아일

31) 「지사 모집 광고」, 『인문평론』 2호, 1939. 11, 23쪽.

32) 지사 설치 공지는 3호(1939.12) 236쪽; 4호(1940.1) 135쪽; 7호(1940.4) 73쪽; 8호(1940.5) 72쪽; 12호(1940.9) 73쪽; 14호(1941.1) 147쪽; 16호(1941.4) 219쪽 등 참조.

33) 『中國文藝』 광고, 『인문평론』 2호, 1939. 11., 60쪽.

34) 장문석은 인문사의 광고 전략이 소극적으로 광고만 내보내는 도서와 적극적으로 평론가들이 관여하여 담론을 생산하는 도서를 분할하는 전략을 동시에 썼다고 분석한다. 장문석, 앞의 논문, 2015, 599쪽.

35) 가령, 최재서 평론집의 서문은 이원조가 썼으며, 유진오가 동아일보에, 김남천이 조선일보에 서평을 게재했다. 유진오, 「『문학과 지성』 최재서의 신저」, 『동아일보』, 1938. 7. 9.; 김남천, 「비평정신은 건재 - 최재서 평론집 독후감」, 『조선일보』, 1938. 7. 12. 또한 김남천의 『대하』가 출간된 후 다음과 같이 서평이 집중적으로 게재됐다.

보』 석간 1면을 활용한 박스 광고였다. 박스 광고는 책 제목, 주요 내용, 전문가의 평가, 목차 소개 등을 담은 광고로써 『인문평론』이 창간된 1939년에 집중되었고, 『인문평론』 외에 인기 단행본의 단독 광고도 게재되었다.[36] 또한 인문사는 『인문평론』 지면에 자사의 주요 출간물 광고를 집중적, 반복적으로 게재하되 문구를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선보였다. 소규모 박스 광고도 실었는데, 당대 잡지에서 텍스트가 끝나고 남는 공백에 박스형 광고를 수록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더 나아가 『인문평론』은 개별 기사와 광고의 내용적 연계성을 강화했다. 가령, 최재서 비평 텍스트 말미에 그의 평론집 광고[37]를, 중문학 전공자 배호의 중국 기행문과 중국어 회화 책 광고[38]를 함께 배치하는 식이었다.

한편 인문사는 『인문평론』에 상업 광고를 유치하여 재정의 이익을 도모하긴 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창간호 광고는 창간 축하 광고, 자사 출간물 광고로 채워졌고, 통권 2호 역시 대동광업주식회사, 학예사 조선문고, 사진관 광고 등의 몇몇 광고를 제외하면 자사 광고가 대다수였다. 통권 3호도 양복점, 박문서관, 학예사 광고 등과 자사 광고로 채웠다. 신년호인 통권 4호는 각종 근하신년 광고, 박문서관, 동양극장, 양복점, 잉크 광고 등을 보다 다양하게 수록했다. 만주국 도문성에 지사를 설치한 덕분인지 도문의 상점에서 의뢰한 근하신년 광고들도 눈에 띈다. 통권 7호부터는 일간 신문에

채만식, 「『대하』를 읽고서」, 『조선일보』, 1939. 1. 29.; 유진오, 「문학의 영원성과 역사성 - 『대하』가 보여준 우리 문학의 신세기」, 『동아일보』, 1939. 2. 2.; 백철, 「김남천 저 『대하』를 독함」, 『동아일보』, 1939. 2. 8.; 유진오, 「문예시평 - 『대하』의 역사성」, 『비판』, 1939. 3.

36) 『찔레꽃』 광고, 『동아일보』, 1938. 11. 3., 석간 1면; 『대하』 광고, 『동아일보』, 1939. 2. 4., 석간 1면; 『조선문예연감』 광고, 『동아일보』, 1939. 5. 12., 석간 1면; 인문사 간행물 광고, 『동아일보』, 1939. 9. 26., 석간 1면; 인문사 간행물 광고, 『동아일보』, 1939. 11. 24., 석간 1면 등 참조.

37) 『문학과 지성』 광고,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34쪽.

38) 『표준지나어회화』 광고,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67쪽.

빈번히 등장하던 백보환 약 광고가 수록되기 시작했다. 통권 11호부터 증혈강장 약, 통권 12호에 기침약, 통권 13호에 위장약 등 약 광고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신년호인 통권 14호에 이르러 임질대하약 광고가 등장하긴 했으나 노골적인 문구를 동반한 성병 치료제 광고는 없었다. 이처럼 상업 광고는 뒷호로 갈수록 다양해졌고 일본어 광고도 다수 등장했다. 이는 재정 문제뿐 아니라 조선어가 공식 언론 장에서 사라져가던 사회적 정황과도 연관되는 현상이라 짐작된다.

인문사 간행물의 매진 및 재판 여부는 『인문평론』 광고와 「출판부 소식」을 통해 공지됐다. 최재서에 따르면 국책적 통제가 있기 전에도 경성 출판계는 용지 부족 문제를 겪어 왔다. 그런데 1938년 6월 물자 수급 동원 계획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경우 1. 지질(紙質)의 저 2. 혈수(頁數)의 감소 3. 부수의 감소 4. 간행의 합리화 등을 통해 현재 소비되는 용지의 50퍼센트를 절약하기로 가결되었다.[39] 당시까지만 해도 단행본 출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지시가 없었으나, 1940년 이후로 조선 출판계는 극심한 "용지 기근"에 시달렸다. 『인문평론』의 「출판부 소식」은 "우리 출판부에서는 필사적 활동을 하여 수요의 수십 분 지 일이라도 충당해 드리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보고(1940.2), "날로 격증하는 독자층에 반비례하여 우리 출판부의 초조는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라는 호소(1940.5), "치명적인 용지 문제로 수개월 동안 가위 정지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에 용지 배급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1940.11) 등을 전달했다.[40] 그러나 출간 예고한 서적들을 미처 간행하지 못한 채 1941

39) 최재서, 「출판 일년생의 변」, 『비판』, 1938. 9. 이러한 조치는 단계별로 실천, 강화되었다. 이종호에 따르면 1939년 8월 1일 상공성이 잡지 용지 사용 제한에 관한 성령을 공포,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1940년 5월 17일에는 내각정보부에 신문잡지용지통제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종호, 앞의 논문, 2010, 356쪽.

40) 1941년 11월에 창간된 『국민문학』의 광고 지면을 확인해 보면, 문단의 공식 언어가 일본어로 전환되고 이후 인문사가 주식회사 체제로 바뀐 이후에도 1938~40년경

년 4월『인문평론』폐간을 맞이하게 된다.

3. 인문사 단행본의 유형과 특징

인문사는 1938년 4월부터 1941년 4월『인문평론』이 종간하기까지 단행본 16권(평론집 1권, 교과서 1권, 어학서 1권, 사화집 1권, 야담집 1권, 시집 4권, 장편소설 4권, 편역 시집 1권, 편역 소설집 1권, 완역 장편소설 1권), 연감 4권(부록 별권 포함),『인문평론』통권 16호를 출간했다.[41] 인문사 단행본은 대부분 문학서로 구성되었으며 소수지만 실용서도 있었다.

실용서로는 우선 이화여전 교수 이희승(李熙昇)이 편찬한『역대조선문학정화 권상(歷代朝鮮文學精華 卷上)』을 들 수 있다. 인문사의 첫 간행 서적인 이 책은 이희승이 인문사에 출판을 의뢰한 교과서이다. 따라서 인문사의 자체 기획과는 무관한 책이지만, 각 학교와 문화 단체의 주문으로 6개월 만에 초판이 매진되고 용지란 속에서도 3판이 나온 인기 도서였다.[42] 조선의 전통 시가를 엄선한 이 책은 비평계를 풍미한 고전부흥론에 부합하는 체제를 지니고 있었고 인문사도 이 점을 강조하며 홍보했다.[43] "조선학계의 경사"[44]라는 조윤제의 표현대로『역대조선문학정화 권상』이 조선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보존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실용서였다면, 보성전문 교수

인문사에서 발간된 조선어 간행물이 1942년까지 계속 판매되었으며 재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어 서적이지만 일본어로 광고하였다는 것도 흥미로운데 공식적으로 국어 상용이 강조되는 시점에서도 조선어 '읽기'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41) 부록. 인문사 출간 도서 목록 참조.

42) 박문출판사본은 1938년 4월 인문사에서 전문학교 조선문학 교과서로 발행된 책을 재출간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희승 편,『개정 역대조선문학정화 권상』, 박문출판사, 1946. 범례 참조.

43)「출판부 소식」,『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229쪽.

44) 조윤제,「신간평: 이희승 편『조선문학정화』」,『동아일보』, 1938. 5. 6., 4면.

이상은(李相殷)이 집필한 『표준지나어회화(標準支那語會話)』는 신동아질서 건설이라는 일본발 전시(戰時)담론의 특수를 누린 실용서였다. 『인문평론』 권두언에서 강조되고 있듯 "지나를 구라파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야 동양에 새로운 자주적 질서를 건설해야 한다"[45]라는 모토는 비단 일본만의 사명은 아니었다. 조선 역시 종래의 민족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동양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사는 이 책을 홍보할 때 중국어가 "신시대의 무기"라는 점을 강조했고, 4주면 중국어에 통달할 수 있음(4週自通)을 명기해놓았다. 덕분에 이 책 역시 3판이 예고되는 등 절찬리에 판매됐다.

인문사가 출간한 문학서의 유형은 시국 협력 문학, 대중문학, 순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시국 협력 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서적은 임학수(林學洙)의 『전선시집(戰線詩集)』이다. 1939년 초반 조선 출판업자와 문인들은 북지(北支) 전선에 문인 위문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의하고 김동인, 박영희, 임학수 등 3인의 문인을 파견했다.[46] 이는 "펜 부대"의 위문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된 행사였으나 중일전쟁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고무한다는 목적도 컸다. 당시 총독부는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종군기 『麦と兵隊』(1938)가 일본 출판계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자마자 조선어 번역 작업을 추진하는 등[47] 조선인을 상대로 한 문화적 선전에 착수했다. 나아가 조선 문인들이 직접 총후 계몽에 나서길 요구했는데 『전선시집』은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창작된 전시 기획물이었다. 『전선시집』의 서문은 문단 부대 실행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며 대중적 파급력이 강했던 이광수가 썼다. 이광수는 "조선인 시집으로 된 최초의 사변 제재 시", "지나사변에 관한 조선 문인의 최초의 전쟁문학", "국민 감정을 담은

45) 「건설과 문학」,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2쪽.
46) 「조선문단부대 후보, 실행위원 선출」, 『동아일보』, 1939. 3. 16., 2면.
47) 「西村 通譯官 譯의 보리와兵丁 간행」, 『동아일보』, 1939. 4. 9., 2면. 조선어 번역서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도서관의 대출 상태」, 『조선일보』, 1939. 4. 30., 4면.

최초의 조선문학" 등으로 이 책의 의미를 강조했다.[48] 또한 신문 신간평에서 이 책은 서정시와 기행시적 면모, 다시 말해 문학성까지 겸비한 "총후(銃後)의 시, 필독의 서"로서 소개됐다.[49] 『인문평론』도 창간호 첫 광고로 『전선시집』 광고를 수록하고, 출판부 소식을 전하는 지면에서 "총후 조선민족이 느낄 수 있는 감격" 운운하는 소개 문구들을 붙이는 등 총독부의 방침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둘째, 대중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책으로는 우선 여성 작가 김말봉(金末峰)의 신문연재소설 『찔레꽃』을 들 수 있다. 인문사는 『찔레꽃』이 연애와 권선징악이라는 인간 본연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인생의 다각한 전모를 심각 예리하게 묘파"했으며 "면밀한 구상과 행문의 유려함"에서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50] 이 책은 "대중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51] 소설로서 상찬되며 1938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후 4판까지 매진되고 또 다시 인쇄되어 19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팔렸다.[52] 따라서 인문사의 재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행본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최재서는 신문연재소설의 화두를 "어떻게 하면 독자를 즐겁게 해 줄까"라는 질문에서 찾았으며, 독자 심리를 탐문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가의 기교가 수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독자의 흥미를 인위적으로 도발하려는 유혹"에 빠진 소설들이 대다수인 만큼, 신문연재소설이 상품으로서 고유의 문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53] 이렇게 볼 때 『찔레꽃』은 오락으로서의 문학, 상품

48) 이광수, 「서문」, 임학수, 『전선시집』, 인문사, 1938, 5쪽.
49) 이하윤, 「신간평 임학수 저 전선시집」, 『동아일보』, 1939. 11. 12., 3면.
50) 『찔레꽃』 광고,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52쪽.
51) 「출판부 소식」,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229쪽.
52) 1942년 2월에 6판이 간행됐다. 『찔레꽃』 광고, 『國民文學』, 2호, 1942. 2., 193쪽.
53) 최재서는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노자영의 『인생특급』을 잘 쓰지 못한 신문소설의 사례로 언급하며, "나는 입장과 동기는 다르지만 조선의 신문소설이 철저히 상품화되지 못한 것을 신문 편집자와 함께 분하게 생각한다. 신문소설이 신문소설로서 완전히 상품화된다는 것은 신문소설계를 위하여서나 또는 입장과 정신을 달리 하는

으로서의 소설의 좋은 예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4] 한편 인문사가 두 번째로 선택한 신문연재소설 김남천(金南天)의 『사랑의 수족관(水族館)』은 "단지 재미만을 위주하여 저급하기 비할 데 없는 통속소설"과 달리 "재미와 교양"을 겸비한 저서로서 또한 "저속하지 않은" 신문소설로서 선전되었다.[55] 이 책은 초판을 낸 지 열흘 만에 매진되어 재판에 착수했다.[56]

다음으로 신정언(申鼎言)의 『신정언명야담집(申鼎言名野談集)』과 박태원(朴泰遠)의 『지나소설집(支那小說集)』은 전근대적인 이야기 소비자를 겨냥한 인문사의 출간물이다. 신정언은 1933년 경성방송국이 한국어 방송을 시작하고 야담 방송 시간이 늘면서 야담계에 진출한 인물로서 주로 조선일보와 연계된 활동을 했다.[57] 따라서 이 책의 신간평 역시 조선일보사의 호암 문일평이 썼다. 문일평은 조선 왕조의 각종 사화를 다룬 이 야담집을 "조선 정취"가 흐르는 "재미"있고 "점잖은" 이야기들이라 표현했으며,[58] 인문사는 이를 광고 문구로 활용했다. 또한 박태원의 『지나소설집』은 중국 명청대의 『금고기관(今古奇觀)』과 『동주열국지(東周列國志)』에서 10편의 이야기를 골라 번

다른 작품 세계에 있어서나 서로 색채를 선명케 함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재서, 「연재소설에 대하여」, 『조선문학』, 1939. 1. 참조.

54) 『찔레꽃』은 "현대소설의 깊은 모순인 성격과 환경의 불일치"를 통속적인 방법으로 통일한 "유니크"하고도 "스마트"한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임화, 「통속소설론」,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312쪽.

55) 그러나 막상 '교양' 있는 독자에 속하는 전문대학 학생들은 『사랑의 수족관』에 박한 평가를 내렸음을 여러 좌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사랑의 수족관』보다 『대하』를 선호한다, 『사랑의 수족관』은 너무 통속적이다, 읽다가 그만 두었다는 등의 발언에서 고급과 통속,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에 대한 취향과 구별짓기가 확실히 정착됐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문대학학생 좌담회」, 『인문평론』, 8호, 1940.5; 「이십대 아가씨들 이상을 듣는 좌담회」, 『여성』, 1940. 6. 등.

56) 「출판부 소식」, 『인문평론』, 14호, 1941. 1., 299쪽.

57) 신정언에 대해서는 이동월, 「야담가 신정언과 『신정언 명야담집』」, 『어문학』 122, 2013. 참조.

58) 문일평, 「흥미횡일한 『신정언 야담집』」, 『조선일보』, 1938. 11. 4., 4면.

역한 소설집이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니었고 1938년 『조광』, 『야담』, 『사해공론』 등지에 연재한 결과물들이 한데 묶였다.[59] 인문사는 지나의 패사(稗史)를 "현대화한 박태원 씨의 설화체는 우리 소설문학의 신경지를 개척하는 천하일품이다"[60]라는 문구로 책을 홍보했는데, 이는 소설가 박태원의 위치를 고려한 의례적인 문구라 볼 수 있다. '支那小說集'이라는 문구 역시 '지나' 담론의 붐을 반영한 전략적 표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신정언과 박태원의 이야기집은 근대문학 주소비층인 학생이나 지식인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대중을 겨냥한 출간물이었으나 출판기념회를 생략하는 등 인문사의 주력 서적은 아니었고 재판 소식 또한 없었다.

셋째, 인문사가 중시한 순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서적은 『문학과 지성(文學과 知性)』, 『해외서정시집(海外抒情詩集)』, 『팔도풍물시집(八道風物詩集)』, 『대하(大河)』, 『화분(花粉)』, 『촛불』, 『축제(祝祭)』, 『대지(大地; The Good Earth)』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학과 지성』은 잘 알려진 대로 최재서의 개인 평론집이다. 서문에서 최재서는 "실속있는 유일한 진보는 지성의 그것이고, 허망되지 않은 유일의 완성은 지적 양심의 그것"이니 "빈곤과 간난 속에서도 지성의 영위는 하로도 쉴 수 없는 것"[61]이라며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지성과 교양을 중시하는 입장, 비평문에 등장하는 학술적인 전거들, 일본 학술지와 유명 잡지 『개조』에 논문 및 조선소설 번역을 수록했다는 사실들은 최재서를 당대 독자 대중에게 세련되고 신뢰성 있는 지식인상으로 각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62] 따라서 『문학과 지성』은 물론 그가 펴낸 『해외서정시집』 역시 재판을 찍으며 호응을

59) 박태원의 『지나소설집』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의미는 박진영, 「중국문학 번역의 분기와 이원화-번역가 양건식과 박태원의 원근법」, 『동방학지』 166, 2014. 참조.
60) 『지나소설집』 광고,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225쪽.
61) 최재서,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6~7쪽.
62) 그러나 동료 비평가 김문집은 최재서를 향한 긍정적 평가를 되짚어 공격하기도 했다. 김문집, 「서재평론과 조선문단-최재서를 주로해서」, 『사해공론』 1937. 5., 39쪽.

얻었다. 최재서는 이 시집의 서문에서 '19세기 낭만시'가 진정한 예술과 교양의 관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시문학의 부흥이 기대되는 문단적 상황을 들어 독자에게 이 책을 감상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전문성을 강조했다. 19세기 시인 40명의 대표시 150편을 11명의 외국문학 전공자가 번역해 수록한 이 책은 시인 소개까지 일일이 첨부하는 등 일선 학교 교재로 사용되기에도 적합한 구성을 지니고 있었다.

임학수의 『팔도풍물시집』, 신석정(辛夕汀)의 『촛불』, 장만영(張萬榮)의 『축제』 등은 당대 시인들의 창작 시집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팔도풍물시집』의 경우 조선의 명승고적과 풍물을 두루 다루되 "회고적 센티멘타리즘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동양시의 전통과 구라파시의 감각을 잘 융합"[63]했다는 것이 특장점으로 부각되었고, 『촛불』과 『축제』는 '호화미본(豪華美本)'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전자는 상징적 이미지에, 후자는 조소적인 깊이에 방점을 찍는 광고가 게재됐고[64] 후자의 경우 500부 한정으로 출판되었다.

시 문학에 관한 인문사의 관심은 개별 시집 출판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며 핵심 기획이 시사(詩史) 편찬에 있었다. 그리하여 전4권짜리 『조선현대시집』[65]과 김기림의 시론집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조선어 매체의 통폐합과 물자통제 정책의 가속화로 실현되지 못했다.[66] 목차로 보건대 『조선현대시집』은 학예사에서 임화가 펴낸 『현대조선시인선집』(1939)이 최남선, 조명희, 박영희, 박팔양, 김기진 등을 포함한 것과 변별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는 출판사별 시문학의 계보 작성 방식을 비교해볼 여지를 남기나 미간행된 관계로

63) 『팔도풍물시집』 광고,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43쪽.
64) 『촛불』 및 『축제』광고, 『인문평론』 4호, 1940. 1., 표지 뒤쪽.
65) 『조선현대시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권 김안서 김동환 김소월 이상화 박월탄 주요한, 제2권 김상용 김영랑 임학수 모윤숙 신석정 정지용, 제3권 김기림 김광섭 임화 유치환 이상 노천명 백석, 제4권 김광균 이찬 이용악 서정주 오장환 윤곤강 장만영 등 서정시와 모더니즘시를 중심에 둔 근대시가 망라되었다. 「근간 예고」, 『인문평론』 16호, 1941. 4., 48~49쪽.
66) 부록. 인문사 미간행 도서 목록 참조.

구체적 분석은 불가하다. 따라서 본고는 『대하』, 『화분』, 『대지』 등의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의 출판 기획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인문사의 기타 서적으로는 문일평(文一平)의 유고집 『호암사화집(湖岩史話集)』이 있다. 이는 최재서가 호암 생전에 직접 저술을 의뢰한 책으로[67] 역사 교양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문체독본, 문장독본 등 글쓰기의 모범을 보이는 책으로도 광고됐다.[68]

Ⅲ. 인문사의 총서 기획

1. 전작장편소설 총서 기획

1930년대 후반기는 장편소설 전집 출판의 전성기라 할만하다. "전일에 보지 못하던 전집 수가 최근에 대규모로 쏘다저나오는 것"이 "기쁨"을 넘어서 "일종의 경악"이라 표현될 정도로 전집 붐은 조선 문단이 맞이한 새로운 현상이었다. 따라서 "인선 문제의 불공평"이며 "작품 수준 문제"로 인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69] 당시 출간된 삼문사의 조선문인전집(1938), 한성도서주식회사의 현대조선장편소설전집(1937), 박문서관의 현대걸작장편소설전집(1938)등은 공통적으로 "잘 팔리는 장편 중심의 구성"을 취했다. 예컨대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전집은 『고향』(이기영), 『이차돈의 사』(이광수), 『제2의 운명』(이태준), 『목단꽃 필 때』(염상섭), 『청년 김옥균』(김기진), 『순정해협』(함대훈), 『삼곡선』(장혁주), 『직녀성』(심훈)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선정 기준이 인기나 명성에 치우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장르, 시기, 대표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품을 선정했다는 특징에 더하

67) 이원조, 「跋」, 문일평, 『호암사화집』, 인문사, 1939, 274~275쪽.
68) 『호암사화집』 광고,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61쪽
69) 엄흥섭, 「문예시평 (1) 자비출판시비」, 『동아일보』, 1938. 9. 13., 3면.

여[70] 이 시기에 나온 전집들은 반드시 이광수의 소설을 포함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좀 더 이른 시기인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문학을 명작화하는 일련의 기획을 선보인 삼천리사의 '명작소설 30선'은 심지어 30권 중 10권이 이광수의 책이었다.[71]

인문사의 전작장편소설총서(全作長篇小說叢書) 기획은 이와 같은 추세에 제동을 걸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비평가 집단의 합작 속에서 탄생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최재서를 비롯한 비평가들은 상품으로서의 문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문제는 전집 홍수라 할 만한 현상 속에서 그리고 통속적 스토리텔링의 포화 속에서 전환기 조선의 현실을 타개할 방책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순문학의 영역이라 할 만한 곳으로 눈을 돌려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문단에 범람하는 '세태소설'과 '내성소설'만으로는 소설 본연의 인식론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비평적 판단이었다. 임화의 세태소설론, 통속소설론, 본격소설론, 김남천의 고발문학론, 장편소설 개조론, 관찰문학론, 최재서의 소설 형식론[72]과 현대소설연구 시리즈 등 서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진행된 것으로, 그들은 소설 작법에 변화를 주거나 바람직한 소설 형식을 발견할 경우 충분히 인식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쓸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했다.[73] 따라서 그들은 인문사를 중심으로 전작장편소설이라는 제도

70)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명작이라는 식민의 유령』, 푸른역사, 2012, 229쪽. 해당 전집의 각권 구성은 232쪽 참조.

71) 박숙자, 위의 책, 240~241쪽.

72) 당시 최재서는 1938년 나치스 독일의 프로이트 체포 소식을 '심리주의' 문학의 퇴조를 알리는 사건으로 알렸다. 최재서, 「현대세계문학의 동향2 - 서사문학의 제단계」, 『조선일보』, 1938. 4. 23. "심리와 의식의 세계로부터 사건과 행동의 세계로 전개시키자 함은 현대의 일치된 요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일의 문학에 대한 일 좌표로 본대도 과히 어그러짐이 없으리라"는 그의 판단은 보고문학, 연대기소설 등 조선 문단에 도입 가능한 장편소설의 형식을 가늠해보는 논의로 확장돼나갔다.

73) 이진형,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 이론: 임화, 최재서, 김남천의 소설

실험에 착수한다.

> 全作이란 새로운 語彙는, 昭和 十三年 五月, 人文社가 全作長篇小說叢書의 刊行을 發表하기 爲하야 文壇의 重鎭 二十餘 名을 雅叙園에 招待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一般의 協贊을 얻어서 비로소 맨든 말이다. 內地에서 흔히 말하는 '書き下ろし長篇'에 該當하는 語彙이다. 그러나 이것을 文學的으로 說明하자면, 朝鮮的 長篇小說의 特殊性에 대한 若干의 考察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長篇小說(로만)이란 '쟝르'史的으로 考察하야, 封建 制度가 漸次로 崩壞되고 商業資本主義가 上昇하는 時代의 市民階級의 代表的 文學形式으로서 發生해온 것인데, 朝鮮서는 '로만' 發展의 胎盤이 될만한 資本主義的 發展이 悲慘하게 東洋的으로 後退되였고 歪曲되었기 때문에, 新文學이 輸入된 以後에도 '로만'의 開花는 볼 수 없었다. 社會的 經濟的으로 市民的인 進步가 遲遲하고 歪曲되었기 때문에, 그 우에 建設되는 一般文化와 觀念 諸形態도 이를 反映하지 않을 수 없어서, 長篇小說은 內的質的 發展에 있어서 市民社會의 理念을 充分히 發顯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發表形式까지 新聞紙에만 依據한다는, 全혀 歐羅巴에서는 볼 수 없는 奇現象을 顯出하기에 이르렀다. 新聞紙가 啓蒙的 機關이기를 自處하던 時代는 지나가고 漸次, 商業的 企業形態로 나아감에 따라 新聞連載小說 우에 새로운 干涉을 始作하였고 이리하야 本是 아무러한 傳統도 土臺도 없이 發展해오던 '로만'은 重大한 危機에 處하게 되었다. 이것을 救하자고 일어난 運動이 長篇小說運動, 乃至는 '로만' 改造의 論議였는데, '全作'小說은 新聞雜誌에 依하지 않는 發表形式으로서, 이 運動과 協力하려고 비로소 誕生한 文學的 制度인 것이다.(南)[74]

인용문은『인문평론』모던문예사전 중 '전작장편소설' 항목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작'은 매체 발표라는 형식 없이, 그리고 사측과 독자 대중의 반응에 좌우됨이 없이 작가의 기량과 세계관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장르 논의』, 소명출판, 2013, 247쪽.

74) 김남천,「모던문예사전-전작장편소설」,『인문평론』창간호, 1939. 10., 121~122쪽.

는 제안이 담긴 용어였다. 전작에 참여할 작가로는 김남천, 이효석, 유진오 등이 일단 선정됐다. 이는 여타 장편소설 전집이 이광수를 필두로 염상섭, 나도향, 박종화, 현진건 등 전 시대의 소설가를 선정한 것과 차별화된 선택이었다. 과거에 쓴 소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쓰일 소설이라는 점에서 전작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순문학 진영에서 문학성을 인정받는 창작자로 제한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예컨대 함대훈은 러시아문학 전공자로서의 전문성을 보유한 지식인이었으나 그가 쓴 『순정해협』은 결코 비평 담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단편의 대가 이태준도 장편의 영역에서는 예외였다. 단편은 예술, 장편은 생계(통속)라는 공식을 작가 자신도 인정하는 모양새였던지라 그는 전작의 실천자로 지목되지 않았다.

인문사는 전작장편소설총서의 간행을 발표한 후 창작 과정과 후일담을 일간 신문 및 『인문평론』 지상에 공개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힘썼다. 그리고 총서 출간 후에는 신간평과 광고 게재, 장편소설 현상 모집 실시를 통해 전작의 의미를 재생산했다.[75]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한 총서 1권은 김남천의 『대하』(1939.1), 2권은 이효석의 『화분』(1939.9)이었다.

김남천은 '가족사연대기'라는 형식을 통해 조선의 근대를 재구하는 방법을 택했다. 조선의 전통과 근대성이 교차하는 과도기를 배경으로 평안남도 성천의 고리대금업자 박성권과 세 아들의 가족사를 다룬 『대하』는, 세태-사실-생활을 강조해온 작가의 문학관과 장편소설 개조론이 구현된 신작으로서 각광받았다. 신간평을 쓴 백철은 루카치(Georg Lukacs)의 표현을 빌려와 『대하』를 조선 근세의 서사시라 고평했으며, 두 가지 측면을 들어 소설의 특징을 논했다. 첫째, 감상과 영탄의 흔적이 없는 장편소설이라는 점이다. 기존 장편

75) 김남천과 유진오는 전작 창작을 위해 각각 양덕산과 금강산으로 떠났고, 평양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이효석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소설을 썼다. 관련 글로는 「동서남북」, 『동아일보』, 1938. 5. 10., 4면; 유진오, 「산중독어(山中獨語)」, 『인문평론』, 창간호, 1930. 10.; 이효석, 「창작여담」, 『인문평론』, 3호, 1939. 12.

소설에 넘쳐나는 파토스 대신 “건실한 서사”에 역점을 둔 점을 백철은 높이 샀다. 둘째, 풍속을 정밀히 그리되 단순 묘사와 서술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며 전진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다. 백철은 이것이 바로 작자의 “모랄”이며 특히 서자 신분인 형걸이 이를 대표한다고 언급했다.[76] 그러나 실상 형걸은 근대성의 도래를 상징하긴 하되 ‘전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갈등 끝에 마을을 떠나는 소설의 결말만 보아도 이는 증명된다. 최재서의 경우 ‘결말 없는 구성’의 문제를 언급했으나, 초점은 전망의 부재가 아니라 대중소설 작가라면 일대 미문으로 쓸 만한 장면들을 어떤 귀결 없이 제시했다는 데 있었다.[77] 이런 평가는 기존의 통속소설과 다른 문법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화의 평을 내세운 인문사 광고도 “기성의 장편소설 수준 돌파”라는 점을 강조했다.[78] 이렇게 볼 때 김남천의 『대하』는 가족사연대기의 형식을 빌려 장편소설의 통속적 전개를 정정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현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작가의 역량 문제로 평가하기보다 ‘식민지적’ 근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가했던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하』는 제1부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었기에 아직은 미완의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효석의 『화분』은 흥미롭게도 ‘예술소설’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개됐다.[79] 김남천의 『대하』처럼 특정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연애와 사랑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긴 하지만 김말봉의 『찔레꽃』처럼 연애소설이라 지칭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 소설은 장르 자체보다 기법의 미학성이 강조된 것이다. 신간평을 맡은 김남천은 이효석의 『화분』에서 “기성 모랄의 부정”이라는 요소를 부각시켰다. 그는 기존의 성 모랄이 언제나

76) 백철, 「뽁 레뷰, 김남천 씨 저 『대하』를 독함」, 『동아일보』, 1939. 2. 8., 3면.
77) 최재서, 「단상」, 『비판』, 1938. 11. 참조.
78) 『대하』 광고, 『인문평론』 창간호, 1930. 10., 23쪽.
79) 『화분』 광고, 『인문평론』 3호, 1939. 12., 표지 뒤쪽.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전제했던 데 반해, 이효석의 소설은 인간을 동물로 환원시켜 기성 도덕 일체가 통렬히 부정되는 장면들을 형상화했다고 썼다.[80] 여기서도 초점은 새로운 "모랄"로써, 전작장편소설 총서를 '새로움'의 영역에 위치시키고자 했던 비평가들의 의도를 감지케 한다. 『화분』은 분명 이효석 특유의 문체와 표현으로 연애나 정사의 문제를 통속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룬 소설이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이 희구했듯, 전환기에 처한 현실의 향방을 지시하거나 인식의 각성을 도모하는 소설에 속하진 않았다. 오히려 핵심 인물인 피아니스트 영훈은 "버려둔 정원이나 빈민굴"(조선의 현실)에도 "고려나 신라 때"(조선의 과거)에도 아름다움은 없다고 단언한다. 오직 '구라파'(예술의 세계)만이 그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라파주의-세계주의는 미란에게 전이되어 마침내 그들은 구라파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여겨지는 하얼빈으로 떠난다. 이는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아이덴티티와 어떠한 연관성도 맺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부르주아적인 구원의 행로이다. 따라서 『화분』은 주제의식이 아닌 미적인 문제를 통해 통속소설과의 변별성을 확인받아야 했다.

유진오가 저자로 예정된 총서 3권 『민요(民謠)』는 근간 예고가 여러 차례 공지되었으나 출간되지 못했다. 유족이 보관 중인 원고를 확인한 백지혜의 논의에 따르면, 이 소설은 "경성의 북촌에 살았던 조선 말기 세도가의 모습을 재현"하고 "이들의 풍속을 세밀히 묘사"한 소설이라고 한다.[81] 유진오 역시 김남천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과도기로 거슬러 올라가 근대성의 문제를 다루되, 이 경우 양반가 출신으로 태어난 자기 뿌리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총서 4권과 5권으로 예정되어 있던 채만식의 『심(沈)봉사』, 이기영의 『해녀(海女)』도 광고만 나가고 출간되지 못했다.[82] 채만식과 이기영은 조선적

80) 김남천, 「뿍 레뷰, 이효석 저 『화분』의 성 모랄」, 『동아일보』, 1939. 11. 30., 3면.
81) 백지혜, 「경성제대 작가의 민족지 구성방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3, 103쪽.

장편소설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로서 이미 기성 장편소설전집에서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인문사는 그들의 명망성이 아니라, 고전소설 다시쓰기와 생산소설 창작 등 장편소설 개조 실천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의 『해녀』는 그 내용을 전혀 가늠하기 어려우나, 채만식 소설의 경우 단서가 존재한다. 그는 1936년 고전소설 『심청전』을 모티브로 삼은 희곡 『심 봉사』를 발표했다. 이 희곡은 해피엔딩을 비극으로 뒤집어버렸다는 데 특징이 있다. 환생하여 왕후가 되었어야 할 심청은 인당수에 빠져 죽은 것으로 밝혀지고, 심 봉사는 눈을 뜨긴 뜨나 제 눈을 찔러 다시 장님이 된다. 부처님의 자비며 용궁 세계의 신이함, 권선징악의 희망 등이 사라져버린 냉혹한 리얼리즘의 세계를 그린 것이다.[83] 여기서 채만식이 초점을 맞춘 것은 심청의 효가 아니라 심봉사의 무능, 나약, 공허함으로, 배경이 현대는 아니지만 동시대의 거세된 남성 지식인의 서사에 동궤에 놓일 만하다. 전작 장편소설총서 제목으로 보건대 채만식은 이를 장편소설로 재창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84]

이처럼 전작 제도의 창안과 이를 둘러싼 지식인들의 합작은 식민지 후반기

82) 부록. 인문사 미간행 도서 목록 참조.

83) 채만식, 『심 봉사』,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참조.

84) 총서 발간이 무산되자 채만식은 태평양전쟁 종전 직전인 1944년 11월부터 잡지 『신시대』에 소설 「심 봉사」를 4회 연재한다. 호구지책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은 이 「심 봉사」는 잡지에 '가정소설'로 소개되었다. 즉, 조선의 고전/전통 영역이 아니라 가정의 대소사와 애환을 다룬 읽을거리로서 등장한 것이다. 소설 「심 봉사」는 희곡 『심 봉사』와 달리 초현실적인 지평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늘도 땅도 아닌 어떤 허공에서 한 양주가 "인간들이 비극이라는 걸 얼만침이나 견디어내는 끈기가 있을꾸?"라는 대화 끝에 '운명록'을 펴든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펼쳐 심학규의 내력에 무어라 한 줄을 추가한 후 한번 구경이나 해 보자고 의기투합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심학규 일가의 이야기가 시작되나, 미완인 만큼 이 액자소설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것이 인문사 총서로 쓰고자 했던 소설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출판 문화 장을 몰락, 암흑, '친일'의 전야가 아닌 '생산적인' 미완의 시기로 평가하게 한다. 다시 말해 미완이긴 하되 실패는 아니었던 집단지성의 중심에 인문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명작소설총서 기획

인문사는 1940년 5월 세계명작소설총서 기획의 제1권으로 펄벅(Pearl Buck)의 『대지』 1부 완역본을 출간했다. 전작장편소설 기획과 달리 명작총서 기획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작장편소설총서와 세계명작총서 기획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동되는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대지』는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전형적 형식 속에서 중국의 근대성 문제를 다루고 있어 소설 개조가 시급한 조선 문단의 현 상황에서 하나의 "전범"으로까지 일컬어졌다.[85] 따라서 펄벅의 『대지』는 김남천의 『대하』와 더불어 인문사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대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대지』는 193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지만, 여타 노벨상 작품선들과 달리 '대문호'의 창작으로 대접받지는 못했다. 일본과의 전쟁으로 중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수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이다.[86] 어쨌든 『대지』는 서구인이 누리고자 하는 이국성과 스토리의 재미까지 두루 충족하는 작품이었던 만큼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미국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 맥락은

85) 서구적 장편소설의 수법을 배움으로써 본격소설론이 성취될 수 있다고 논했던 임화는 "지나의 역사적인 에포크"를 담를 담은 『대지』가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화, 「『대지』의 세계성」,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627쪽.

86) 펄벅의 대지와 노벨상 수상을 둘러싼 맥락에 대해서는 피터 콘, 이한음 역, 『펄벅 평전』, 은행나무, 2004.

달랐다. 중국 북경에서는 "지나 농민"의 궁상을 실제보다 너무 과장하였다는 이유로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영 금지에 이르렀다.[87] 조선인 관람객이 보기에도 이 영화는 문제가 있었다. 서양인 배우들이 중국인으로 분장했기에 연기 및 분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고 내용적으로도 중국을 왜곡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88] 무엇보다도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표상을 신기한 것으로 맘 편히 향유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조선의 빈곤한 현실, 조선의 피폐한 어머니상과 겹쳐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89] 이렇듯 노벨문학상이라는 이슈와 영화를 둘러싼 논평들은 원작에 대한 관심을 새삼스럽게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화제성 때문에 인문사는 독자들이 『대지』를 (일본어로) 다 읽어버린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하며 조선어 완역본 출간을 준비했다. 사실 『대지』 1부가 간행된 해가 1931년인 데다 30년대 중반에 일본어 번역본이 출간돼 베스트셀러로 등극한지라 웬만한 지식인들은 『대지』를 다 읽은 상황이었다. "어떤 책이 '이미' 베스트셀러라는 사실 자체가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장치'"[90]가 된다는 공식이 제국-식민지 체제하 이중언어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번역과 출판의 곤혹스러움을 유발했던 셈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점은 인문사가 단지 '많이 파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완역 작업을 감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91] 즉, 인문

87) 「영화 <대지>와 <대전간첩망>, 북경서 상영금지, 묘사가 가혹타는 이유로」, 『동아일보』, 1938. 2. 19., 5면.

88) 「근래의 대작으로 과장되는 <대지>의 시사를 보고」, 『동아일보』, 1938. 2. 2., 5면.; 김성칠, 「펄벅과 동양적 성격」, 『인문평론』, 9호, 1940. 6.; 이헌구, 「신간평 『대지』, 김성칠 역」, 『인문평론』, 13호, 1940. 11.

89) 일례로 유진오는 영화 <대지>를 강경애의 「지하촌」과 연계하여 생각한다. 유진오, 「대지와 지하촌」, 『삼천리문학』, 1938. 4.

90) 천정환, 정종현, 『우리가 사랑한 책들, 지의 현대사와 읽기의 풍경』, 서해문집, 2018, 24~25쪽.

91) 실제로 『대지』의 번역을 담당한 김성칠은 3년여의 시간을 들여 번역을 완수했다.

사의 세계명작소설총서 기획에는 시대의 명작을 '조선어'로 번역해 '널리 읽힌다'는 계몽성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점은 동시대 신생출판사인 명성출판사의 『대지』 번역본과 비교해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

인문사판 『대지』 출간보다 앞선 시점인 1940년 3월 명성출판사는 세계문학전집의 제1권으로 『금색의 태양』을 출간했다. 노자영이 번역한 이 책은, '금색의 태양'이라는 표제를 지닌 특정 작품이 아니라 펄벅의 『대지』 1부와 『어머니』, 그리고 『퀴리부인』 등 세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해 묶은 다이제스트였다. 이는 당대 일본과 조선을 동시에 강타한 펄벅과 퀴리부인[92]이라는 기표를 간편하게 두루 섭렵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포착한 기획물이자, 문예물 위주로 문학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조선 출판계의 특수성을 십분 활용한 인스턴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대지』의 줄거리를 임의대로 끊고 오란의 죽음 장면에서 서사를 종결지었다. 따라서 이 판본으로 『대지』를 읽게 되면 오란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반성하는 왕룽의 눈물을 결말로 맞이하게끔 되어 있다.[93] 이처럼 왕룽 부부 스토리의 종결로 마무리하며 왕룽 아들 세대 스토리의 출발을 삭제하는 방식은, 왕룽의 반성을 강조하여 오란의 죽음을 슬퍼할 독자를 위로하는 효과를 자아냈을지는 모르나 가족의 역사와 중국의 근대사를 맞물려 엮여내고자 한 작가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94]

따라서 인문사는 '완역'이라는 사실을 홍보의 최전선에 배치해 활용했

『대지』 광고, 『인문평론』 9호, 1940. 6., 71쪽.

92) 일본과 조선의 퀴리부인 소설화에 대해서는 김성연, 「"새로운 신" 과학에 올라탄 제국과 식민의 동상이몽-퀴리부인 전기의 소설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 2011.

93) 노자영 편역, 『금색의 태양』, 명성출판사, 1940, 140쪽.

94) 홍효민은 이 요약본을 놓고 "초역(抄譯)"과 "구태(舊態)"의 문제성을 지적했으나 시간절약, 명쾌한 내용, 종이 기근의 정세 등 그것의 장점도 최대한 이끌어 낸 주례사적 신간평을 써 냈다. 홍효민, 「뿍 레뷰 노자영 편 『금색의 태양』을 읽고」, 『동아일보』, 1940. 4. 1.3., 4면.

다.[95] 이런 광고 문구가 대표적이다. "임화 씨 왈-악역, 중역, 초역 등 출판계의 흥왕과 더불어 파생하는 온갖 악경향의 대두기에 있어 독학 김성칠 씨의 수년 고심한 양심적 번역은 우리 출판계의 장거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어 초판이 채 나오기도 전에 책 주문이 마감, 절판되었고 바로 재판에 들어갔다.[96] 이처럼 일본어를 자유롭게 다루는 식자층이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 『대지』를 조선어로 읽히고 싶다는 바람은 인문사만의 것은 아니었다. 보다 앞선 시점인 1936년 심훈은 니이 이타루(新居格)가 일본어로 번역한 『대지』를 중역해 『사해공론』에 6회 연재했으나 요절로 이를 완결짓지 못했다. 이때 심훈은 "조선에서도 이러한 농민소설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97]다며 스토리의 흥미에만 주목하지 말 것, 연재분을 꾸준히 읽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요컨대 심훈은 '농민소설'의 올바른 예로 『대지』를 지목했던 것이다.

인문사의 출판과 담론 형성에 조력했던 지식인들 역시 『대지』를 농민소설이라는 범주와 관련하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심훈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았다. 다만 심훈이 생각한 농민소설과 1940년을 전후한 시점의 농민소설은 현저히 상이한 의미망을 지녔다. "요새 씨워지는 이 말은 특히 거번 有馬 농상을 고문으로 소화13년 10월 4일에 결성된 '농민문학간담회'원들의 작품을 지칭한다"[98]는 설명이 드러내듯 이 시기의 농민문학은 일본의 '국책'과 긴밀히 연관된 표제어였다. 그리하여 이무영 같은 작가는 발 빠르게 「제1과 제1장」(1939), 「흙의 노예」(1940)등의 귀농 소설을 발표해 시세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임화와 김남천 등의 비평가들은 농민의 의리나

95) 목차 뒷면 광고, 『인문평론』 12호, 1940.9.
96) 「출판부 소식」, 『인문평론』 8호, 1940. 5., 231쪽; 「출판부 소식」, 『인문평론』 14호, 1941. 1., 288쪽.
97) 심훈, 「장편소설 『대지』」, 『사해공론』, 1936. 4.(김종욱 · 박정희 편, 『심훈전집8 영화평론 외』, 글누림, 2016, 341쪽 재인용).
98) 최재서, 「모던문예사전 - 농민문학」,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0., 106쪽.

향토에 대한 애착심을 그리는 것, 명랑한 농촌을 그리는 것을 모토로 하는 일본농민문학적인 것에 비판적 의견을 표했다.[99] 요컨대 식민지 지식인들은 식민 권력이 요구한 국책으로서의 농민문학에 다양한 입장과 태도로 반응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농민의 생활을 그린 소설을 품평하고 번역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여러 겹의 맥락들을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글은 『인문평론』 창간호에 수록된 인정식의 비평이다. 전향 마르크스주의자인 인정식은 『대지』를 매개로 시국론, 아시아적 정체성론, 농민문학론, 조선어 문학론을 한데 엮어 논의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대지』를 필히 '열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여[100] 인문사의 기획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이유는 이 소설이 강우량이 부족한 자연조건, 관개의 중요성, 농민과 노예의 신분적 교착 관계, 토지에 대한 농민의 강렬한 예속성, 자연재해에 의한 처참한 광경, 봉건주의, 상인자본, 고리대자본의 삼위일체 등을 다루며 일개 중국 농민의 생애가 아닌 '아세아적' 현실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정식의 진정한 관심사는 응당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조선의 농민문학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있었다. 그는 조선 작가들이 농촌의 생활 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리와 박노갑 등이 그리는 농민은 아세아의 농민이 아니라 "괴물과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01] 이러한 비판은 대표적 농민문학 작가로 일컬어지는 이기영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인정식은 이기영조차도

99) 「좌담회 신건할 조선문학의 성격」, 『동아일보』, 1939. 1. 14., 13면.

100) 인정식은 펄벅의 남편인 농촌경제학자 로싱 벅의 협조로 인해 지나의 농촌 현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소설에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인정식, 「『대지』에 반영된 아세아적 성격」, 『문장』 1-8, 1939. 9. 참조.

101) 임화 역시 당시 발표된 농촌 제재 소설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정비석의 「성황당」이 조선적이 아니라 민속학적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좌담회 신건할 조선문학의 성격」, 『동아일보』, 1939. 1. 14., 13면.

극히 상식적인 농촌을 평범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지식인이 아니라 농민 자신이 읽는 농민문학의 가능성을 논하며 "언문의 혜택"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보다 조선어가 쉽고 간단히 배울 수 있는 언어라는 편의성의 차원과 결부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조선어 존립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했다.[102] 이처럼 『대지』를 참조 대상으로 삼아 조선 사회의 성격 규명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이와 결부된 문화적, 문학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정식의 논의는, 1930년대 후반기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대지』가 해석, 배치, 담론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예이다.

인문사는 인정식의 논조를 이어받아 『대지』가 농촌의 부녀자들도 읽을 수 있는 소설임을 강조했다.[103] 번역자 김성칠은 "동양 여성의 전형"과도 같은 오란의 캐릭터를 조선 여성(예비 독자)의 표상과 겹쳐서 논평했다. "우리의 주위에 신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풍조에 물들지 않은 오란과 같은 타입의 어머님과 누이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것이 『대지』가 특히 이따의 독자에게 아필하는 박력이 아닐까 생각한다."[104] 이는 일차적으로 학생, 지식인에 치우친 명작의 독자층을 민중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었으며, 더 적극적으로는 독서를 통해 농촌의 현실을 자각하고 생활문화 향상을 도모하자는 함의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명작이되 너무 어렵지 않아 일반 민중도 읽을 수 있는 책을 '드디어' 포착해 번역했다는 자부심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시 동원과 통제가 가속화되는 농촌에서, 게다가 중층 결정된 모순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인문사판 『대지』를 손에 들 여력이 있을 것인가? 지식인의 자기 각성과 실천 필요성에서 출발한 전작장편소설총서가

102) 인정식, 「조선농민문학의 근본 과제」, 『인문평론』 창간호, 1939. 12. 참조.
103) 『대지』 광고, 『인문평론』 9호, 1940. 6., 71쪽.
104) 김성칠, 「펄 - 벅과 동양적 성격」, 『인문평론』 9호, 1940. 6., 68쪽.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둔 데 반해, 대중 교양의 문제와 맞닿아 있던 세계명작소설총서는 이 지점에서 이념과 실제의 간극을 드러냈다. 황군(皇軍)의 위업과 국민의 자세를 강조하는 전체 언론 장에서 농촌의 부녀자라는 상상된 독자층을 겨냥한 인문사의 기획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잘 팔리긴 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이 민족의 계몽과 자립을 전제로 한 민족주의적 의미망과 맞닿아 있는가, 아니면 조선 농촌의 민도 향상을 통한 전쟁 수행이란 제국의 전시 담론과 맞닿아 있는가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대지』는 식민 권력이 보기에 위협적인 서적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조선어 완역을 강조한 인문사의 애초 취지와 다르게 『대지』는 1942년 10월 『國民文學』 지면에서 여전히, 그러나 일본어로 광고된다. 대중 계몽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지』를 홍보한 인문사와 달리 총독부는 이 책을 중국을 배경으로 삼은 안전한 읽을거리로 취급한 것이다.

Ⅳ. 결론

본고는 식민지 후반기 조선 문화 장을 살필 때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질문들을 화두에 두고 있다. 가령, 소설의 통속화 문제를 고민했던 최재서는 왜 『찔레꽃』을 인문사에서 출판했을까? 김남천의 『대하』와 이효석의 『화분』이 공유하는 특징은 무엇일까? 펄벅의 『대지』가 전시체제하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텍스트 생산의 기반과 환경을 고찰할 때 해명 가능한 논제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인문사를 구심점으로 삼아 식민지 후반기 출판 문화 장과 문학 담론의 관계를 재구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인문사의 출판 배경, 운영 방식, 출간물 현황을 짚었다. 전환기적 현실과 문학 시장의 융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은 비평가 최재서가

출판 기획자로 전신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당대 문학의 쇄신을 통해 창작과 비평을 활성화하고 대중 교양을 앙양한다는 인문사의 목표는 문장사의 『문장』 발간 및 상고주의, 학예사의 문고 발간 및 조선적 학술에 대한 관심과 변별되는 것으로써 1930년대 후반기 출판 문화의 다양화에 기여했다.

인문사는 최재서가 주관한 소규모 출판사였으나 거대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일간 신문과 자사 미디어를 최대한 이용해 서적의 홍보와 영업, 담론 재생산을 도모했다. 또한 문학서 출간 시 시국성과 대중성의 문제를 제외하지 않는 등 출판사의 생존을 위한 방책을 두루 고려했다. 이는 용지와 재원 확보에 관건이 되는 출간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예컨대 총독부 기획에 부응하는 출판을 맡는 것으로 협조의 의지를 보였으며,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만한 '지나어' 학습서 홍보에도 힘을 썼다. 야담집 등 전근대적 이야기집을 비롯하여 시대를 풍미한 베스트셀러 김말봉의 『찔레꽃』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인문사의 핵심 기획은 문학의 상업화와 속물 교양의 보급에 반격을 가하는 전작장편소설총서와 세계명작소설총서 발간에 있었다. '전작' 제도는 통속소설의 범람과 순문학의 무기력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이었다. 최재서, 김남천, 임화를 중심에 둔 비평가 집단은 소설의 발표 형식을 바꿈으로써 상업적 저널리즘의 공세를 방어하고, 새로운 소설 형식의 실험을 통해 세태와 내성의 세계로 전락한 리얼리즘을 갱신하고자 했다. 이는 작가 자신의 각성은 물론, 전환기 현실을 올곧게 인식하고 전망하는 방책이라는 점에서 문단의 고른 지지를 얻었다. 총서의 집필진은 김남천, 이효석, 유진오, 채만식, 이기영 등 소설 개조의 취지에 동의하며 평단으로부터 문학성을 인정받은 작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출간된 총서는 김남천의 『대하』와 이효석의 『화분』 이었다. 두 소설은 각각 가족사연대기 형식의 역사성과 미적 문체의 예술성을 구현한 소설로 고평되었다. 또한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모랄의 제시와 기성 모랄의 전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통속소설과 변별되는 면모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는 실효를 거둔 기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인문사는『대지』를 세계명작소설총서의 첫 권으로 배치하고 간행했다. 고전이 아니라 시의성 있는 명작을 선택한 것은 전환기 현실 인식을 중시하는 인문사의 기본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재미있는 노벨문학상 작품'이라는 세간의 평판과 달리 이 시기에『대지』는 다층적인 의미망 속에서 담론화되었다. 우선『대지』는『대하』와 더불어 소설 개조와 혁신을 둘러싼 비평 담론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대지』는 당대 일본의 농민문학 담론과 이를 둘러싼 해석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비평적 대상이기도 했다. 인문사는 특히 농민을 재현하는 문학이 아니라 농민이 읽을 수 있는 문학의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하여 책을 홍보 시 조선어 완역본임을 강조했으며, 독자로서의 여성-농민 표상을 통해 인문 교양의 확산을 전망했다. 이는 신문학과 구문학 독자대중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 세계명작을 전파하려는 취지를 띠고 있었으나 담론에 그쳤을 뿐 실효성은 없었다. 인문사판『대지』를 읽는 농촌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상상 속의 존재였다.

이처럼 본고는 인문사 연구의 첫 단계로서 실증적 정리와 담론 분석을 병행하며 총서 간행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인문사 출판 기획의 현황을 재구했다는 점, 식민지 후반기 문학 생산의 토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한『인문평론』과『연감』관련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여 인문사의 출판 기획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인문사 출간 도서(목록은 부록 참조)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국민문학』, 『문장』, 『비판』, 『사해공론』, 『신시대』, 『삼천리문학』, 『여성』, 『인문평론』, 『조광』, 『조선문학』, 『청색지』 등.

2. 논문 및 단행본

강유진, 「『인문평론』의 신체제기 비평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7.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김성연, 「"새로운 신" 과학에 올라탄 제국과 식민의 동상이몽: 퀴리부인 전기의 소설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 2011.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1』, 일지사, 1984.

노자영 편역, 『금색의 태양』, 명성출판사, 1940.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 명작이라는 식민의 유령』, 푸른역사, 2012.

박윤우, 『한국 현대시와 비판정신』, 국학자료원, 1999.

박진영, 「중국문학 번역의 분기와 이원화: 번역가 양건식과 박태원의 원근법」, 『동방학지』 166, 2014.

박필현, 「『인문평론』에 나타난 "지나(支那)": 자기화된 만주와 제국의 "안의 밖" 지나」, 『한국문예비평연구』 45, 2014.

박헌호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방민호, 「임화와 학예사」, 『상허학보』 26, 2009.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1.

백지혜, 「경성제대 작가의 민족지 구성방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3.

송병삼, 「1930년대 후반 "비평의 기능": 『인문평론』의 문화담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4, 2008.

송병삼, 「일제말 근대적 주체되기의 감성과 문화담론: 1930년대 후반 <人文評論>지(誌) 문화론을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36, 2010.

서은주, 「파시즘기 외국문학의 존재방식과 교양: 『인문평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2, 2012.
신동준, 「『인문평론』 연구: 전체주의에 대한 대응 담론을 중심으로」, 인천대 석사논문, 2008.
심훈, 김종욱 박정희 편, 『심훈전집8 영화평론 외』, 글누림, 2016.
유석환, 「1930년대 잡지시장의 변동과 잡지 『비판』의 대응: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 『사이』 6, 2009.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3.
유석환,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2」, 『한국문학연구』 53, 2017.
이동월, 「야담가 신정언과 『신정언 명야담집』」, 『어문학』 122, 2013.
이종호, 「출판신체제의 성립과 조선문단의 사정」, 渡邊直紀 외 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소명출판, 2010.
이중연,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출판·독서 통제」, 『한국문화연구』 8, 2005.
이진형,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설 이론: 임화, 최재서, 김남천의 소설 장르 논의』, 소명출판, 2013.
이희승 편, 『개정 역대조선문학정화 권상』, 박문출판사, 1946.
임화,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장문석, 「출판기획자 최재서와 인문사의 탄생」, 『근대서지』 11, 2015.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나무이야기, 2009.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9,
채만식, 『심 봉사』,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채호석, 「193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지형도: 『인문평론』의 안과 밖」, 『외국문학연구』, 25, 2007.
채호석, 「1930년대 후반 문학의 지형 연구: 『인문평론』의 폐간과 『국민문학』의 창간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9, 2008.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천정환·정종현, 『우리가 사랑한 책들, 지의 현대사와 읽기의 풍경』, 서해문집, 2018.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 출판부, 2006.

三原芳秋, 「최재서의 order」, 渡邊直紀 외 편,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 소명출판, 2010.
Conn, Peter, 이한음 역, 『펄벅 평전』, 은행나무,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ation Planning of Inmunsa : Focusing on Publication of Volumes and Series

Seo Seunghui (Seo, Seung Hui)

Inmunsa(人文社) is a publishing company, which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literary and cultural discourses during the colonial Joseon from the late 1930s to the early 1940s. Inmunsa's publications diversely covered Joseon language, history, culture and literature-related books, as well as monthly reviews 『In-Mun-Ppyung-Non』, 『Jo-Seon-Mun-Ye-Yeon-Gam (Joseon Cultural and Artistic Yearbook)』, and Jo-Seon-Jak-Pum-Yeon-Gam (Yearbook of Joseon Works)』. This study firstly made a general survey of the status of the literary marketplace during the late colonial era, focusing on the publication-related writing of Choi, Jae-seo, a president of Inmunsa. Next, this paper examined the management system of Inmunsa and classified volumes published by Inmunsa into two criteria: practicality and literary value.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meaning and status of the entire long-length novel series and the world's great novel series that were the key planning projects of Inmunsa. Though its publications, Inmunsa attempted to study the orientation of reality in the transition period by remodeling novels, as well as to spread of culture by translating great novels. On the other hand, it revealed the possibility and the limitation of liberal arts in the late colonial era, at the same time. In conclusion,

this discussion has significance by empirically reconstructing the publishments of Inmunsa and looking into the foundation and the environment of literary production during the colonial age, in detail.

Key Words : Inmunsa(人文社), Publication Planning, Choi, Jae-seo, Entire Long-Length Novel, World Great Novel, Complete Collection, Series, 『Dae-Ha(大河)』, 『Hwa-Bun(花粉)』, 『The Good Earth』

【부록 : 인문사 출간 도서 목록】

[목록1] 인문사 출간 단행본 목록

	발행시기	도서 제목	도서 성격	판형[105]	정가	송료	저자
1	1938.4[106]	『역대조선문학정화 권상』	교과서	사육판 양장미본	1원 30전	12전	이희승 편
2	1938.6	『문학과 지성』	평론집	(B6판)	1원 30전	12전	최재서 저
3	1938.6	『해외서정시집』	시집 (편역)	사육판	1원 30전[107]	12전	최재서 외 편역
4	1938.8	『신정언 명야담집』	야담집	新사육판	1원 50전	15전	신정언 편
5	1938. 10[108]	『찔레꽃』	장편 소설	사육판 양장 상제	2원	80전	김말봉 저
6	1938.9	『팔도풍물시집』	시집	(B6판)	90전	8전	임학수 저
7	1939.1	『대하.제1부』	장편 소설	사육판 저자 자신의 裝畫에 의한 호화극미본	1원 70전	17전	김남천 저
8	1939.3	『昭和14년판 조선문예연감』	연감	사육판	1원 50전	15전	인문사 편집부
9	1939.3	『昭和14년판 조선작품연감』	연감	사육판	1원 50전	15전	인문사 편집부
10	1939.4	『지나소설집』	소설집 (편역)	사육판	1원 50전	15전	박태원 편역
11	1939.7	『표준지나어회화』	어학서	국반절 (菊半截)	80전	8전	이상은 저
12	1939.7	『호암사화집』	역사서	국반절 휴대판 포장 극미본	1원	8전	문일평 저
13	1939.9	『화분』	장편 소설	사육판 양장미본	1원 40전	14전	이효석 저
14	1939.9	『전선시집』	시집	사육판 미본	1원	8전	임학수 저

15	1939.12	『촛불』	시집	사육판 상질양장 500부 한정 미본	1원 20전	15전	신석정 저
16	1939.12	『축제』	시집	사육판 상질호화미본	1원	8전	장만영 저
17	1940.3	『昭和15년판 조선문예연감』	연감	사육판	1원 50전	15전	인문사 편집부
18	1940.4	『昭和15년판 조선작품연감』[109]	연감	사육판	1원 80전	18전	인문사 편집부
19	1940.5[110]	『대지』	장편 소설 (완역)	사육판 양장 극미본	2원	20전	펄 벅 저, 김성칠 역
20	1940.11	『사랑의 수족관』	장편 소설	사육판	2원	18전	김남천 저

[목록 2] 인문사 미간행 도서 목록

	근간 예고	도서 제목	도서 성격	저자
1	1939.12 『인문평론』 광고	『민요-전작장편소설총서3』	장편소설	유진오
2	1940.4 『조선문예연감』 광고	『심봉사-전작장편소설총서4』	장편소설	채만식
3	1940.4 『조선문예연감』 광고	『해녀-전작장편소설총서5』	장편소설	이기영
4	1941.1 『인문평론』 광고	『조선현대시집』(전4권)	시집	인문사 편집부

105) 당대 광고의 판형 소개를 따르되, 판형 언급이 없을 시 현대적 명칭으로 표기함.
106) 인문사 판본이 남아 있지 않아 해방 후 박문출판사 판본(1946)으로 발행 시기 확인함.
107) 초판과 재판 정가가 다름. 1939년 4월 10일에 발행된 책의 정가는 1원 60전, 송료 15전임.
108) 인문사 판본이 남아 있지 않아 동아일보 광고로 발행 시기 추정함.
109) 소화15년판 작품연감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문예연감은 대동출판사에서 인쇄됨.
110) 인문사 판본이 남아 있지 않아 『인문평론』 출판부 소식 및 광고로 추정함.

5	1941.1 『인문평론』 출판부 소식	『현대시론집』	평론집	김기림
6	1941.4 『인문평론』 광고	『昭和16년판 조선작품연감』	연감	인문사 편집부
7	1941.4 『인문평론』 광고	『昭和16년판 조선문예연감』	연감	인문사 편집부